

이혼·군장병 전문상담가 '실전 배치' 되는데

## 교계 손 놓았나?

이혼상담 법제화 눈앞... 전문교육 참여 불자 소수  
 장병기본권 상담관 9명... 목사 있어도 스님 없어

갑수록 커져가는 이혼문제, 군장병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군내부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부가 두 분야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어느 분야보다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문상담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려는 것이다. 벌써 기독교계는 이에 상응해 빠른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 ● 참여도 준비도 없다

올해 11월 16일 발의돼 올 12월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혼 절차특례법' 이혼을 앞둔 모든 부부가 의무적으로 전문상담가에게 상담 받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지난 10~11월에는 이혼상담 법제화방안에 대해 '전국 이혼상담전문가교육과정'도 열렸다.

그러나 대회를 주최한 것은 기독교계가 주축이 된 '한국목회상담협회'였으며 참가자도 목회자 및 기독교상담가가 대다수였다. 300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불교계 상담가는 단 15명에 불과했다. 교육대회에 참가했던 불은사 포교국장 선영 스님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법원내 이혼상담은 기독교상담가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국방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장병기본권상담관 9명 중에도 목사는 있지만 스님이나 불교계 상담사양을 가진 전문상담가는 내년에 124명이, 2007년부터는 연대급 이상 모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지만 불교계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가 중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전국학교에 배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지만 불교

계는 이 역시 강 건너 불구경이다.

### ● 상담전문대학 개설 준비중

현재 불교계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지닌 동시에 불교적 마인드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상담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1급이나 2급 교사자격증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들에 한정된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은 방학중에 운영하던 6개월과정의 상담교과를 2003년에 폐지했다. 학기중에는 교편을 잡아야하는 현직교사들이 종립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불교상담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불교상담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 또한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이) 불교상담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상담전문대학을 개설하고 법인등록절차를 밟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현재 개발원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중 상담심리학을 석사 이상 전공하거나 한국상담심리학

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은 전체 20%정도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불교상담 전문교육과 연구를 전담할 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내년초를 목표로 불교상담가를 한 자리에 모을 '불교상담전문가협회'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추진의 중심인 불교상담개발원 1기 상담원 담교 스님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마련을 통해 상담가들의 허브 구실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 전문가 양성·관리해야

무엇보다 불교적 소양을 가진 전문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립대학교 내 상담학과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교정신을 기초로 한 불교상담학과를 개설,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얻거나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자격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불교상담가를 양성, 훈련해 자격증까지 주는 단계도 다수 필요하다.

이미 기독교계에는 한국목회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상담대학원협의회, 한국영성심리치료협회 등의 기관이 있어 기독교상담가를 조직적으로 양성할 뿐 아니라, 전국의 신학대학에 목회상담학과가 필수적으로 설립돼있다. 이들 목회상담가들은 이혼상담전문가교육대회를 공동주최 할 뿐 아니라 장병기본권 상담관 제도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불교계가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불자들은 마음치료를 타종교 상담가에게 위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은비 기자 renby@buddhapia.com



자비의 연말을...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 목표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뤄졌는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실행살이를 설계할 때다. 시민들의 발길이 바빠지는 도심에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세로의 아쉬움을 대변하고 있다. 이곳이 없이 어찌 내가 존재하겠는가? 서울 종로에 설치된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정성'을 담고 있는 스님들의 손에서 '자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희망이 느껴진다. 사진=고영배 기자

## “지정분야 세분화 바람직”

‘영산재’ 기능보유자 늘려야 여론

영산재 보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기능보유자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11월 4일 주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구해 스님이 지정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0년 법패 부문 보유자였던 송암

벽운 스님이 입적한 이후 5년 여만의 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패 부문은 구해 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됐으나 장엄과 작법 부문은 아직도 공석이다. 장엄 부문은 지광 스님이 입적한 96년 이후, 작법 부문은 2003년 일운 스님이 입적한 이후 보유자를 내지 못했다.

영산재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봉원사 주지)은 “영산재가 온전히 전승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보유자가 한 명밖에 지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후 지속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패 부문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구해 스님은 “과거 법패와 작법, 장엄 부문에 모두 보유자가 있었는데도 이번에 법패 부문만 지정됐다”며 “앞으로 작법과 장엄 부문 보유자가 속속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공원 입장료 폐지 요청 기관 스님 노대통령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잇달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2면

지관 스님은 11월 30일 예정한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현재 국립공원입장료를 문화재관리료와 분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한꺼번에 받는 곳도 있는 등 일반인들의 불평이 많다”며 “입장료 폐지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입장료 폐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입장료 폐지를 요청했으며, 노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류춘규 연구관은 “기량평가단을 비롯해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후보들의 기량과 품성 등을 고루 살펴보고 조정한 결과 보유자 자격에 걸맞는 분이 한 분뿐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2월 16일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대토론회 ‘무형문화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울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권기연 기자 jygyang@buddhapia.com

##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마감임박

원고지 30매... 12월 17일 마감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자극받은 답이 있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중구 경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2006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다뉴스
- 문의전화: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만) 열쇠를 드립니다.

영문 포탈부다피아 eng.buddhapia.com

‘할’  
 보시를 하면 나도 보답을 받겠지  
 카메라에 찍히면 알아주겠지  
 아무 목적 없이 해! 너 답지 않아!  
 헤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전선(케이ابل) / LED등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주시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울리기 전 모습



연등 자동장터 세를 중 한틀이 준공된 모습 (불을 켜줄때의 전경)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들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등    각등    팔각접등    유등    공단등    육각조립등    팔각조립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단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031)792-6288, 794-4055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 / e-mail: chanduk21@hanmail.net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